

‘문학’ 이후의 한국 문학 연구

박슬기*

디지털시대의 문학연구방법론에 대한 시론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한국 사회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디지털자본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태동하고,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된 디지털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연구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디지털인문학에 토대한 문학연구방법론은 기왕의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로 전환함으로써, 문학연구의 대상인 ‘문학’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문학이란 근대적 개인의 자기 표현이자 표상으로서, 따라서 작가는 작품의 절대적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지닌다. 또한 문학 작품은 문자텍스트로서 근대적 언어의 특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하나의 완결된 미적 구조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인문학 연구방법론에서 저자와 문학작품은 둘 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작가는 데이터의 집합체이자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통합될 수 없는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가-작품의 관계는 해체된다. 또한 문학 작품 역시 문학어가 지니고 있던 기호와 지시대상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상실하고, 수없는 기표들의 현존의 패턴으로서 무한히 확장하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전환된다.

저자의 데이터화, 문학 작품의 데이터화는 단순히 문학 연구에 새로운 기술적 방법론을 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 작품이 지니고 있었던 근대문학 담론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한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 방법이 기존의 제도가 요구하던 연구의 목표, 즉 작가나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재대상화되는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디지털인문학, 한국문학, 근대문학, 데이터화, 저자, 문학어, 문학연구방법론

1. 디지털자본주의 시대의 문학 연구: 디지털기술과 문학

이미 1972년에 리오타르는 자기의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가 “사회의 컴퓨터화”¹일 것임을 주장했다. 이 사회에서 지식은 정보의 양으로 번역되며, 지식 공급자와 사용자가 지식과 맺는 관계는 상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과 맺고 있던 관계의 형식으로 변환될 것이라는 것이다.² 즉 전 시대의 지식과는 달리 지식은 사용 가치를 상실하고, 교환 가치만을 가지게 된다. 그가 이를 ‘포스트모던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란 무한히 확대되는 교환 체계다. 이러한 조건이 만물을 상품화함으로써 교환 체계를 확대하고, 자본의 축적을 사회경제적 체계의 법칙으로 삼아온 역사적 자본주의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³ 중요한 점은 지식이 ‘정보의 양’으로 변환된다는 점이다. 지식이 정보로 전환되면서, 지식의 질은 정보의 양으로 대체된다. 1972년에 예견했던 그의 주장은 컴퓨터라는 도구로 인해 진행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3차, 4차 산업혁명이라 선언될 정도로 전면화된 지금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⁴ 모든 ‘질적인 것’들이 ‘양적

1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2018),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2018, p. 39.

2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2018), p. 32.

3 이매뉴얼 월러스틴(1993), 나종일·백영경 역,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비, pp. 16-19 참고.

4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가 화폐이자 상품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가 다시

인 것’으로 변환되고 있는 시대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에 의거하여 금융 자본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디지털자본주의라고⁵ 할 수 있다면, 이는 자본주의적 교환 체계를 ‘디지털 기술’에 의거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업과 시장이 ‘활용’하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체제와 소비 체제,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 모두에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⁶ 새로운 체제다. 이는 기술을 우리의 삶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자본이 되는 순환적 과정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조동원(2013), 「정보의 자본화 과정 비판: 정보의 추상화·사유화·상품화, 지적 재산권」, 『정보사회와 미디어』 26집, 한국정보사회학회, p. 3].

- 5 컴퓨터 네트워크들은 현존 자본주의가 대규모로 시장을 넓히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 쉼터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금융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형성된 자본주의 체계는 생산과 소비, 생활과 문화, 정치와 교육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디지털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쉼터(2001), 추광영 역, 『디지털 자본주의: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 전략』, 나무와솔, pp. 20-21, pp. 342-345 참고.
- 6 임운택(2022),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 『경제와사회』 133집, 비판사회학회, p. 13.
- 7 모든 기술이 인간의 ‘인간다움’에 개입하여 변화해 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의 과학과 공학의 발전은 ‘인간’이라는 개념과 인간으로서의 자기 인식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인간이 출현시킨 기술적 대상이 되, 창조력과 반성적 사유 등 오랫동안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간주되어 온 ‘인간적 영역’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회의가 지금의 시대에 현실화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에 기술은 유용한 ‘도구’가 아니며, 기술적 대상은 인간의 타자이자 인간의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간주해야 한다는 시몽동의 사유는 기술과 기술적 대상에 대한 기왕의 인간적 인식을 넘어설 것을 주문한다. 기술적 대상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사유를 포스트휴머니즘론이라 할 수 있다면, 다양한 포스트휴머니즘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대는 “인간은 기술과 더불어 공진화할 수밖에 없다”[진태원(2022), 「포스트휴머니즘 또는 디지털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한국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수용」, 『기억과 전망』 4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기술이 리오타르가 선언했던 1970년대 이후,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확대되어 왔다면, 지금-우리의 입장에서 문학과 디지털기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000년대 초, 한국사회가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이를 통한 사회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국현대 문학연구 학술장에서도 디지털기술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이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과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선택법에 의해 학의 인문학이 전방위적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면서⁸ 동시에 종래의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법이 봉착했던 한계를 새로운 시대 변화의 흐름에 의거하여 돌파하고자 했던 연구자들의 모색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다.⁹

현대문학 연구의 차원에서 보자면,¹⁰ 한국문학연구 대상들, 즉 문학 텍

p. 234]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론을 다루지는 않지만, 문학 연구 분야에서 ‘기술’의 적용이 종래의 연구 대상이었던 ‘문학’을 어떠한 종류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려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포스트휴머니즘론의 토대에 서 있다.

- 8 이광석·윤자형(2019), 「국내 ‘디지털인문학’의 정착과 굴곡: 대학 교육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불안정한 접속」, 『한국언론정보학보』 95집, 한국언론정보학회, pp. 12-18. 논자들은 디지털인문학이 대학의 중요한 학술 담론으로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대학에 가해진 전방위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인문학적 성찰이 이루어질 시간을 가지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해체된 인문학의 존립을 위해 마련된 교육책이자, 내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대응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 9 이재연(2018),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한국문학에서 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역사학보』 240집, 역사학회, pp. 160-165. 이재연은 창작의 관점에서 문학 자체의 변화를 도모했던 초기기의 작업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의 차원에서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짚어보면서 이러한 연구의 진전 과정이 디지털 기술과 문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확대에 의거한 것임을 살펴보고 있다.
- 10 디지털기술과 문학의 관계 측면은 두 방향에서 탐색되어 왔다. 하나는 창작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연구의 측면이다. 창작의 측면에서는 디지털문학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문학 양식’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기술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독자 혹은 기술이 창작에 개입하면서, 종래의 폐쇄적이고 완결된 형식의 텍스트가 무한히 확장되는 개방적이면서 연구하게 생성 중인 텍스트로 변모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하이퍼텍스트를 둘러싼 논의나 게임 등의 디지털서사, 다양한 매체를 따라 변모하는 디지털문

스트를 비롯하여 문학이 실려 있는 매체(잡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작업을 시작으로 디지털기술을 문학 연구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¹¹ 초창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를 디지털 시대에 부응해야 하는 학문적 사명으로 삼았다면,¹² 기술 활용이 진행되면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문학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종래의 문학 연구가 질적이고 주관적인, 정성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양적이고 객관적인, 정량적 방법에 의거한 문학 연구로 전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연구는 네트워크 연구, 토픽 모델링, 텍스트마이닝, 공기어 분석,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으나 핵심적으로는 문학 텍스트

학콘텐츠 등의 차원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디지털기술과 문학의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문학을 기왕의 ‘문학성’의 개념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새로운 ‘문학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일 것이며 이 역시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봉관(2000), 「디지털 시대의 문학과 그 정체성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8집, 한국현대문학회; 장창영(2004), 「디지털 문학의 텍스트성과 입체화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피종호(2005), 「디지털 문학의 유형」, 『비히너와 현대문학』 25집, 한국독일현대문학회; 정의진(2024),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성 논의를 위하여: 문학의 역사성을 상기하며」, 『비평문학』 93호, 한국비평문학회 등) 디지털문학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이 디지털기술과 문학의 관계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글의 초점은 한국 현대문학 연구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이 적용되는 양상이다. 연구의 차원에서 문학은 여전히 ‘종래의 문학’이다. 두 차원의 문학이 다른 것임을 감안할 때, ‘디지털문학텍스트’의 ‘문학’과 ‘디지털문학연구방법론’이 대상으로 하는 ‘문학’이 다른 대상이라는 점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후자의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종래의 대상’이 디지털기술과 함께 ‘새로운 대상’으로 변모하게 되는 가능성이다.

- 11 인문학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을 사유 혹은 활용하는 연구는 동시에 또한 디지털기술을 통해 검토되기도 했다[박경우(2022), 「인문학 연구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적용 방향: 디지털 인문학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집, 국어국문학회]. 초기의 디지털 프로젝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장노원·임미진(2022), 「디지털인문학의 형성과 문학지식 플랫폼」, 『문화와 융합』 90집, 한국문화융합학회, pp. 237-244 참조.
- 12 권영민(2001),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의 방향」, 『국어국문학』 129집, 국어국문학회, p. 10.

를 데이터의 집합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작가, 발표 매체, 작품의 양과 시간대별 분포 등 작품의 외적 관계뿐만 아니라, 어휘, 문장, 문체 등 텍스트의 내적 자질, 작품의 공간과 인물 유형, 인물 관계 등 사실상 문학 연구에서 ‘대상’으로 간주되는 모든 영역이 데이터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보의 질에서 양으로, 양을 더 큰 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¹³ 전통적인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문학’ 개념은 완전히 다른 대상으로 변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량적 연구의 목적이 전통적인 문학 연구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의아한 일이다. 가령 문학통계학을 주창하면서 현대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김병선은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 결과적으로 개별 시인들이 자기의 언어를 통해 남겨놓은 일종의 ‘지문’, 즉 시인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¹⁴ 수많은 시어들을 계량화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학 연구의 최종 목표인 질적 판단을 위한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를 기계의 도움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저자를 더욱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통해, 문학의 총체적 이해를 심화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정량적 방법을 취하는 연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¹⁶

13 질적 관점에서 양적 관점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대량화’, 즉 정보의 양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양화는 ‘양’으로 계산가능한 것으로서 대상을 전환시킨다는 점, 즉 대상을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왕에 계량할 수 없었던 대상, 즉 문학의 언어와 작품은 오로지 질적 가치로만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양적 가치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데이터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문제는 전환 자체의 효과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일단 양으로 전환되면, 양은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문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14 김병선(2006), 「현대시인의 문체적 지문을 찾아서」, 『국어국문학』 143집, 국어국문학회, p. 154.

15 김병선(2015), 『현대시와 문학통계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 17.

16 문한별은 개별 작가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작가의 개별적인 스타일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며, 데이터(어휘, 형태소 등)를 활

그러나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문학은, 특히 한국 현대문학연구의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기록시스템인 ‘문자텍스트’이다. 문자텍스트는 문자 시대의 인식과 조건을 반영하고, 동시에 인간의 인식과 조건을 창출한 기술적 대상이다. 그것은 말하기를 대체한 글쓰기이자 인쇄된 것으로서, 문자로 이룩한 모든 문화의 인식 체계를 창출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 개념은 애초에 강력한 문자주의 선언을 바탕으로 출발했으며,¹⁷ 이 문자주의는 한국 현대문학의 여러 단계들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문자 텍스트’이자 ‘책의 물질성’을 지닌 한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는 강고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디지털자본주의의 모든 영역에서 질적인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문학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디지털기술로 인해 구술 문화는 문자 문화를 재전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술성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는¹⁸ 시몽동의 지적을 참고한다면, 기왕의 ‘문자 텍스트’로서의 문학이 지금 시대 한국 문학 연구의 어떤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디지털자본주의의 전면화로 인해 물질, 즉 문학이라는 텍스트와 그것의 개념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한다

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문한별(2015), 「한국 현대소설의 기계적 문체 분석 가능성을 위한 계량적 방법론: 1930년대 작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0집, 국어국문학회, p. 42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설 어휘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작가의 창작적 특징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나[문한별·김일환(2011), 「김남천 소설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4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시의 계량적 분석이 시인의 사상과 의식의 세계를 보다 정밀하게 고찰할 수 있으리라는 논의들이 그러하다[전은진(2014), 「신동문 시의 어휘 사용 양상과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 『인문과학연구』 4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77].

17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오」에서 밝힌 근대문학의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문자주의다. 이에 관해서는 박슬기(2024), 「근대 ‘문학’의 문자주의와 전통 ‘시가’의 가창성: 『소년』의 글-시가 배치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82집, 열상고전연구회, pp. 175-177.

18 질베르 시몽동(2011), 김재희 역,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그린비, pp. 144-145.

면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로 인해 변화된 문학’이라는 대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문학이 점유하고 있었던 오래된 토대를 재점검하는 것이다. 문학이란 무엇이며, 디지털기술로 인해 재대상화된 문학은 다시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문자가 데이터(정보)로 전환되었을 때, 문학은 여전히 문학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디지털 인문학자들의 논의에서 드러나 있기도 하다. 문자에 한정되지 않는 텍스트의 전면적인 등장, 문자텍스트를 둘러싼 소통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문학을 문자의 영역으로 한정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¹⁹ 이 글에서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문학연구방법론이 문자텍스트로 된 문학, 즉 근대문학이라는 대상에 집중될 때 기왕의 근대문학 개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태동하고,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된 디지털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연구방법론이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적용되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근대 문학연구라는 학문 분야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문학 연구의 목표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과 연구자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탐색하는 것, 이를 통해 100년을 이어온 근대문학 개념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19 이와 관련한 논의는 류인태,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인문논총』 77권 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이승은, 「이야기는 어떻게 데이터가 되는가」(『한문학보』 51집, 우리한문학회, 2024) 참고.

2. 저자의 데이터화: 작품의 소유자에서 네트워크의 한 지점으로의 전환

이 지점에서 근대문학 개념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의 근대문학은 근대적 주체의 자기 표현으로서 자율적이고도 초월적인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성립했다.²⁰ 그것은 근대성이 그러하듯, 작가의 자기 표현은 문학이며 문학은 작가의 자기 표현이라는 자기 지시적이고 자기 반영적인 형태이다.²¹ 그런 측면에서 근대문학은 인간의 내면을 특권화함으로써 자기 세계의 주인으로 정립시킨 근대성 자체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성 자체가 역사적인 단절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시대의 성격이 아니라, 자기의 시대를 규정하는 일종의 문화적 자기의식²²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기서 강조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자기의 표현으로서의 문자 텍스트가 문학이라는 근대의 자기반영적 규정 아래에서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작가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문학의 ‘작가’는 문학 텍스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²³

그런 측면에서 1990년대의 비평 담론에서의 문학의 옹호 움직임이나,

20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오」에서 선언된바, 정에 기초하고, 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서적으로서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미적 자율성을 획득함으로써, 동시에 독일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확립되었던 철학과 사유를 대체하는 절대적인 인간의 영역으로서의 지위 또한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1920년대 동인지 문학에서 완성되었는데, 결국 인간의 문학 담론은 근대 문학이 미의 특권성, 절대성의 가치를 통해 정치적/외연적 과정을 삭제하며 일련의 ‘근대적 주체’의 표현이자 대체물로서의 문학예술이 되는 과정이었다 [박슬기(2022), 『『태서문예신보』의 문학주의: 1910년대 말의 감정 구조와 문단의 형성, 『비평문학』 83집, 한국비평문학회, p. 159].

21 프레드릭 제임슨(2020), 황정아 역, 『단일한 근대성』, 창비, p. 67.

22 Peter Osborne (1995), *The Politics of Time: Modernity and Avant-Garde*, London: Verso, pp. 7-12.

23 작가는 신성한 창조적 주체로서,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창조성의 담론은 근대문학 개념이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레이몬드 윌리엄스(2007),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pp. 23-38 참고.

2000년대 초의 문학의 종언과 같은 선언들²⁴은 이러한 전통적인 근대문학의 지위가 흔들린 현실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고진이 주장한 것은 문학의 창작과 수용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더 이상 사회·정치적 영역과 연결된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에 그 영역의 중심은 내면에서 기인한 것이며, 내면의 특권성과 문학의 특권성이 일치될 때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비평 담론에서 진정성, 즉 내면의 담론이 재부상한 것은²⁵ 이러한 ‘진정성의 문학 혹은 내면의 문학’이 진정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적 상황의 반영이다. 즉 정치적이고 실정적인 이념의 지위 상실과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현전이라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주체의 대응’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시 내면과 주체의 문학의 옹호라는 것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근대성을 ‘다시 쓰기’를 통해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근대성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²⁶ 피하기 어렵다.

24 가라타니 고진은 ‘근대문학의 종언’을 말하면서, “문학이 근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고, 그 때문에 특별한 중요성, 특별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가라타니 고진(2006),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p. 43]이라고 적고 있다. 말하자면 근대 문학이 근대에 부여 받았던 특권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리얼리즘이나 영향력, 내면의 자율성은 특권성의 준거점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에 그가 근대 문학의 기원에서 구성적인 것들,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말했던 것들이다.

25 근대성 담론이 제기된 이유를 1987년 체제나 냉전 체계의 해소와 같은 정치/경제적 변혁을 들기도 하고, 1994년 이후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확대를 들기도 한다. 80년대와 90년대의 연속과 단절의 감각 속에서, 90년대 문학은 대체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개인의 편재화와 같은 것들이기도 하다. 문학 비평의 영역에서 문제 삼은 근대성이란 그것 자체가 미적 근대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정성이란 근대적 주체의 내면성을 다시-쓰는 것이며, 이는 민족이라는 집단적 주체의 내재적 초월적 지위를 개인의 내면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학이 예전과 같은 권위를 잃어가는 시대, 문학이 시대의 전위로서 민족의 반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시대에 문학-비평의 담론들은 이 내면성의 강화로 대체한 것이다. 신성한 것으로서의 근대 문학은 이러한 지점에서 90년대적인 외피를 입는다[안지영(2021), 「‘문학’ 혹은 ‘근대’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 ‘포스트’ 진정성의 탈구축과 90년대 미적 근대성 비판」, 『상허학보』 63집, p. 555].

26 황정아(2020), 「근대성의 판타지아: 1990년대 한국문학의 근대성 담론」, 『개념과 소통』

근대문학 개념과 작가, 내면성의 관계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기술을 연구방법론으로 하는 정량적 연구들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근대문학 개념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인문학과 네트워크 연구를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적용한 이재연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재연은 디지털기술과 문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대적 틀과 이를 벗어나는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는 네트워크 연구를 본격화한 논문에서, 네트워크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질적 방법론에 근거한 문학 연구 방법은, 그 방법론의 대상이 된 작가, 집단, 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천착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가 혹은 작가 집단이 놓이는 위치와 역할을 가늠하는 데에 필요한 거시적 시각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²⁷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작가 혹은 작가 집단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 즉 작가와 작품의 관계가 아니라 작가의 외적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작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질적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 창조파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도 출신이고 일본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이며 기독교도가 많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른 동인인 폐허파와 백조파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적 결속성을 높여나갔다. 이러한 서술은 동인의 속성을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작가를 대응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파는 마치 작품 활동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집단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들이 다른 동인들 혹은 동료작가들과의 대타적 활동을 했더라도 창조파라는 문단 내에서의 고정

25집, 한림과학원, p. 123. 황정아는 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성의 ‘틈’을 살피고 그것이 이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은 “근대성의 다시-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황정아(2020), p. 118].

27 이재연(2014),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間SAI』 30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 259.

된 위치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움직인 듯한 착각이 든다. 그러나 사실, 동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문학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268-269)

그의 비판은 이전의 한국문학사가 반복해 온,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일종의 순환논증을 정확히 겨냥한다. 이 논증은 문학에 대한 정의가 그러하듯, 작가의 작품과 작품과 작가를 마주 세워놓은 채 서로를 반영하는 자기 지시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재연은 개별 작가는, 심지어 그가 동일한 문학적 사유를 공고하게 공유하는 집단인 동인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동인 내에서 그리고 동인 밖에서 맺는 그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움직이는 ‘관계’의 역학에 의해 늘 새롭게 구성되는 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움직이는 문학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네트워크이며, 그는 작가를 네트워크의 한 지점으로서 즉 일종의 연결망 속에 놓인 ‘위치’로서만 제시한다. 그는 “사회연결망 상의 작가는 항상 복수형이며 하나의 세력의 구성원”²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근대문학 개념이 토대하고 있던 작가의 절대적 단수성을 부정한다. 주요 작가 중심의 문학사가 배제하는 무명의 혹은 덜 중요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당대의 문학장을 재구성함으로써 문학장을 보다 더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문학사에서 1920년대 문단의 중심이라 보였던 이광수가 이 연결망 속에서는 중심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이광수가 맺고 있는 다양한 연결망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광수가 아니라 한국문학사에서 잊혀진 무수한 다른 작가들이라는 점, 이에 따라 주요 작가들의 영향력이 문학사에서 과소 혹은 과대 평가되어 왔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이는 프랑크 모레티가 19세기의 영국의 출판목록을 검토함으로써 시도

28 이재연(2014), p. 261.

한 것이기도 한데,²⁹ 이재연 역시 모레티의 기획을 공유하고, 그의 맥락에서 “관계적 시각”을 통해 문학장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장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작가와 작품의 밀착 관계에 대한 근대문학의 고정 관념을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가 저자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듦으로써, 저자에 걸려 있던 근대문학의 여러 담론적 층위를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작품 창조자로서 저자가 지니는 작품 소유권을 박탈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창작품의 소유자로서의 창조적 주체가 되기 어렵다. 앞서 논의한바 기존의 근대문학 개념에서 저자는 작품의 절대적 창조자로서, 문학 작품이 갖게 되는 미적 자율성의 근거다. 문학의 미적 자율성이란 근대적 개인의 권리로서의 절대적 자유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적 개인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의 자유는 이 소유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적 주체’에 근거한다.³⁰ 말하자면 자유는 소유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작품의 미적 자율성이 작가의 자율성과 동일할 수 있는 이유는 작품과 작가가 소유의

29 모레티는 19세기의 영국의 출판목록을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정전으로 여기고 있는 작품들은 전체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며, 정전 중심의 문학사는 이 수많은 당대 문학의 현상을 정전의 잉여로서 외면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정전 중심의 문학사가 비평과 연구 담론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정전 이외의 ‘남겨진’ 텍스트들의 형식이 어떤 갈등 관계를 통해 일종의 진화 과정을 밟은 것이며 이를 통해서 문학 텍스트가 가진 형식적 요소들을 정전의 형식을 ‘꼼꼼하게 읽는 것’보다는 더 실체에 부합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정전이란 형식의 무수한 갈등관계를 거쳐 살아 남은 것으로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학사란 일종의 형식의 진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프랑크 모레티(2021),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세계문학과 수량적 형식주의』, 현암사, pp. 100-124 참고.

30 캐서린 헤일스(2013),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나』, 열린책들, p. 25. 헤일스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을 부정하며, 자유 그 자체가 전도적 인식의 산물임을 지적한다. 즉 시장 관계 전에 자유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자유로운 자이는 시장 관계에 의해 생산되며 사실상 시장 관계에 선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근대 문학의 미적 자율성은 작품이 전적으로 단독적 작가의 소유로서 인정되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다.³¹

그러나 일단 작가를 단독적인 개인으로 혹은 미적 이념과 사유를 공유하는 소집단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인적 관계와 매체적 관계라는 네트워크의 한 지점으로 전환하는 한에서 작가의 고유한 창조성은 그 자율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매체와 작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즉 작가의 창조성이 먼저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체로부터, 그에 얽혀 있는 수많은 인간적/물질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의 창조성이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작가-작품-매체의 관계가 한번 확립되자, 작가의 창조성이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두 번째 측면이다.

이러한 전도는 근대 초창기의 문학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나, 근대문학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감춰져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지식의 네트워크 속에서 ‘아는 자’로서의 ‘나’가 창출된다는 것이나 혹은 편지 형식의 문학이 기반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기반하여 근대적 ‘나’가 창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² 문학은 교환 체계 속에서 탄생하며, 작가(근대적 주체)는 이 교환 체계의 초월론적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근대문학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재연의 네트워크론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네트워크론은 등가적이든 부등가적이든 교환 체계를 이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수한 점들이 연결되어 생성된 패턴의 연쇄로 정의할

31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저작권의 문제가 소유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역시 의미있을 것이다[권영준(2010),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3권 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pp. 166-169].

32 박슬기(2018), 「청춘의 문학, 근대문학의 전도된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6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참조.

수 있는 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점들의 연결과 패턴의 형성에 일관된 논리적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위의 점들은 수많은 조건들의 가변성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연결되며, 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패턴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결국 가변적이고 임의적인 연결망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무한히 확대되어 가는 체계가 된다. 이 네트워크에서 작가는 초월적 자리를 점유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와 연결되는 수많은 네트워크의 한 지점이자, 연결된 네트워크의 모든 다른 성격을 나눠받고 있는 자로서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네트워크는 여러 갈래의 영향력을 조건에 맞는 몇 가지의 것을 해체하고 가시화하여 그 영향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끔 하는데³³ 이러한 네트워크 연구의 가시적 결과는 그 어떠한 작가도 절대적인 중심점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연결망에 따라 다른 중심이 생겨나는 이러한 분포가 요구하는 것은 작품에 있어서라면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화³⁴이다. 이재연은 이를 작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인은 창조의 동인일 수 있고, 서북지역 문인의 일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역할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김동인’이라는 주체의 총체적 면모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동인’이라는 저자가 수많은 연결망 속으로 분해된다는 점이다. 저자를 데이터로 삼는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근대문학 개념이 불가분의 토대로 얹혀 있던 주관성의 포기를 실제적으로 겨냥한다.³⁵

33 이재연(2014), p. 290.

34 프랑크 모레띠(2021), p. 320.

35 프레드릭 제임슨이 모더니즘 문학예술의 흐름에서 읽어냈듯 주관성에 대한 포기는 소외에 대한 체념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반응일 수 있다. 주관성의 포기는 그것이야말로 이데올로기로서 공고화된 문학 개념에서 ‘소외된’ 문학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프레드릭 제임슨(2020), p. 153]. 주관성의 포기는 주로 문학 작품의 질적, 주관적 분석에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로 문학 텍스트 내적 분석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텍스트와 저자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근대문학의 주관성과 저자-작품의 연관관계를 파괴하고자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다. 가령 장문석과 류인태는 저자에 대한 정교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작가를 총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³⁶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한 새로운 작가 연구로서 윤동주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윤동주에 관한 인문학적 ‘데이터’의 생산과 구축이다. 윤동주를 대상으로 한 기존 웹 사이트와 페이지는 전통적인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연표나 서지 등의 정보단위에 근거해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정보처리 맥락을 고려한다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형식으로 윤동주에 관한 정보와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를 설계해야 하며, 그에 입각해 정보와 지식을 정리하고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기초한 작업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윤동주에 관한 글을 간행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윤동주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359-360)

위의 인용문에서 논자들은 연구를 두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윤동주에 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형식”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를 설계”해야 한

저자를 데이터로 간주하고, 네트워크의 한 지점으로서 전환시키는 연구에서 주관성의 포기는 실제적 현실로서 시각화되어 드러난다.

- 36 장문석·류인태(2021),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1): 작가 연구를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설계」, 『민족문학사연구』 75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pp. 353-354. 연구의 목표는 한국 문학 작품과 작가를 총체적으로,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인문학적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논자들은 한국문학 연구가 작가론과 작품론을 비롯해 여러 단계로 분화된 상태를 디지털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종합적 성격의 한국문학 연구 온톨로지 설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작가 및 작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총합함으로써, 윤동주라는 작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목적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왕의 연보 단위 혹은 활동 단위가 운동주의 생애를 통시적인 과정에 따라 재구성한다면, 이는 생애를 구성하는 모든 의미 있는 사건들을 공간화하는 것이다. 발표 매체, 인적 네트워크, 심지어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운동주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화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작가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무엇을 했는가”³⁷이기 때문이다. 이는 생애사를 구성하는 여러 사건들을 시간선에서 떼어내어 분절하여 재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운동주라는 한 개인의 생애 즉, 일종의 ‘운동주 서사’는 공간화된다. 이로써 특정 시공간의 사건들은 시간적 연속성이나 인과성의 원리와 분리되어 각각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데이터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는 일관된 통시성에 따라 배열되기 어렵다. 나아가 각각의 데이터는 또다시 세 가지 요소로 다시 분류된다. 시간과 공간을 형식요소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아우르는 요소(인물, 사건, 작품, 단체, 기관, 자료)를 내용요소로 하되, 이 두 요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 혹은 연구라는 의미요소가 그것이다.

그런데 인간 생애의 모든 순간들의 연속성이 특정한 지점에서 분명하게 분절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지점들은 또한 형식과 내용 그리고 의미요소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을까? 인과 혹은 연쇄라는 연결적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 요소는 각각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연속성 역시 분절적 순간의 연쇄라고 간주한다면, 데이터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갰다면 연속성이 단절되는 한순간이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영화의 운동적 이미지가 사실은 수천 수만 개의 고정된 이미지의 연속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원리는 연속적인 것을 무수히 많은 분절적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데이터와 숫자로 재현된다. 그런 점에서 이 방법은 디지털화의 방법이되³⁸

37 장문석·류인태(2021), p. 364.

38 레프 마노비치(2014),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p. 36.

언제나 더 많은, 더 큰 숫자를 요구하는 수량적 방법인 셈이다.

저자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를 더욱 잘게 쪼갰다면, 이 작은 정보들은 쪼개진 만큼 늘어나서 더욱 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 데이터를 ‘의미론적 성과’를 밝혀낼 수 있도록 가공하면 저자의 총체적 이해에 도달하는 객관적 궤적을 찾을 수 있을까? 데이터는 더욱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며, 특히 데이터 사이의 비어있는 의미를 보충하는 또 다른 데이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과정을 통해 작가는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의 집합으로 전환되며,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해 문학(작가와 작품을 종합하는) 온톨로지적 해석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해보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가-작품의 관계는 해체되고 작가는 담론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³⁹ 디지털언어로 된 연구에서 그 연구 대상인 ‘저자’는 데이터의 집합체이자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통합될 수 없는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전환된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환 자체다. 논자들의 대상인 운동주라는 근대적 작가는 근대적 작가로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39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전환함으로써 바르트는 낭만주의적 문학 담론에서 저자가 차지했던 절대적 권위를 부정했다. (롤랑 바르트(2022),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참조)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문학의 비평과 수용의 현장에서 여전히 저자의 권위가 강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르트의 논의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연구는 이러한 바르트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데이터로서의 문학 언어:

언어의 통합체에서 데이터의 계열체로의 전환

저자가 그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한 지점일 뿐이라면 문학 연구는, 더 정확히는 작가-작품을 거시적이고 계량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네트워크 연구들이 사용된 사회학이나 문화연구 등 다양한 학문 영역과는 달리, 문학 연구는 ‘작가와 그의 창작성으로서의 작품’을 분명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에이브럼스가 제시했듯, 문학이란 ‘작품’을 둘러싼 세 개의 관계적 요소들 즉 저자와 세계, 독자라는 요소들 관계의 중심⁴⁰이자 리쾨르가 말했듯 저자와 독자의 매개로서의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작품을 둘러싼 세 개의 관계적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하더라도, 그러한 방법론이 동원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은 문학 텍스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연구방법론에 의해 재조명된 문학 텍스트는 기존의 근대문학 텍스트와는 다르게 재대상화된다. 문자 텍스트가 문자 문화에서 가졌던 지위, 즉 글쓰기에 의해 재현된 상상적 세계이자, 독자 해석에 의해 의미화되는 세계⁴¹라는 지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를 데이터화하는 연구에서 작가는 수많은 데이터로 현존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데이터 자체에서는 부재한다. 기존의 작가론적 연구들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대표적으로 작품, 수필,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작가를 연구함으로써 이들 자료들이 보여주는 연관성과 차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작품이 생산된 매체의 성격이나 하필이면 그 매체에 그 작품을 수록한 이유라든가 가족 관계가 창작에 미친 영향이라든가와 같은 이면적 맥락들은 자료로써는 증명되지 않

40 M.H.Abrams(1971),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6-7.

41 폴 리쾨르(2002), 박병수·남기영 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p. 167.

는다. 자료에 부재하는 요소들은 연구자의 유추와 직관에 의해서 자료와 통합된다. 동시에 부재하는 요소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지점을 데이터화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는 이 무형적 요소들을 데이터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한다. 말하자면 통상적인 작가론에서는 선택의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것들을 모두 표면 위에 올린다. 이 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기존에는 선택의 가능성에 따라 남아 있던 부재의 요소들을 데이터로 현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방법을 완전히 새로운 언어의 논리, 즉 컴퓨터 언어의 논리로 재편하는 것이다.⁴²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 작가는 데이터의 집합체이다. 작가론적 관점에서의 ‘작가’는 데이터에 부재하지만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작가는 데이터에, 데이터로서 현존한다.

이러한 컴퓨터 언어의 논리는 문학 텍스트를 데이터화하는 데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문학 언어를 데이터화할 때 발견되는 것은 현존과 부재의 전도라기보다는 기표들의 현존들로만 구성되는 패턴의 연속으로 보인다. 문학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는 일상어와 동일하지만 일상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기표와 의미의 관계에서 하나의 기표는 통상적이지 않은 의미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텍스트로서 구성되는 구조적 원리에 의해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문학어는 이면의 지시대상을 재현하는 언어이며, 문학 텍스트는 이 언어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문자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할 때 직면하는 문제가 분명해진다. 기표의 지시대상으로서의 의미, 혹은 더 나아가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시대상은 오로지 데이터화된 기표에 의해서만, 이 기표의 반복적 패턴에 의해서만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백석 시에 관한 통계적 분석은 코퍼스 구축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석 시의 특징에 걸맞는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사 빈도, 어휘 빈도, 주요 어휘(키워드, 공기 네트워크 대상어) 선정, 공기 네트

42 레프 마노비치(2014), pp. 311-312 참고.

워크 설계를 통해 계량적 방법으로 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⁴³ 이 연구는 디지털연구방법론의 활용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연구로, 그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코퍼스 구축의 방법과 주요 어휘 추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논문에서는 ‘가난’, ‘이야기’의 공기어 분석, 네 번째 논문에서는 빈출 어휘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⁴⁴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백석의 시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빈출되는 어휘를 통해서 주제론적 차원을 검토한 후에, 빈출 어휘로만 백석 시의 주제를 탐색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빈출 어휘의 공기어 분석을 도입하여 주제론적 차원을 더 정밀하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⁵

‘이야기’, ‘가난’은 백석시의 주제 의식을 담은 핵심 시어이다. ‘가난’, ‘이야기’라는 시어가 드러나지 않아도 ‘가난’의 의미를 담은 시가 있을 수 있고 ‘이야기’라는 시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 민족, 혈연 공동체의 전설이나 민담을 소재로 한 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야기’가 소재가 아닌 시의 구성과 서술 양상 등의 형식적 특징인 ‘서사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 분석은 코퍼스에 등장하는 단어만을 추출할 수 있다. 시 전공자의 내용 연구는 통계를 참조하여 ‘무엇’

43 이상숙·김일환(2022), 「백석시의 코퍼스 구축과 통계 분석 연구: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1」, 『우리문학연구』 74집, 우리문학회, pp. 126-127.

44 논문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이상숙·김일환(2022); 이상숙(2023), 「백석의 시어 ‘가난’의 공기어 분석: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2」(『아시아문화연구』 62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이상숙(2023), 「백석의 시어 ‘이야기’의 공기어 분석: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3」(『인문과학연구』 50집, 대구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상숙(2024),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4: 백석 시의 빈도수와 키워드 활용을 중심으로」(『아시아문화연구』 64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5 공기어 분석을 통해 “시 문장의 통사 구조, 이미지들 간의 친연성, 이미지의 연쇄와 관계된 연상의 과정 추적”(이상숙·김일환(2022), p. 127)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를 보여준다.

과 ‘어떻게’를 조정하고 그에 맞는 통계를 추가하는 지점을 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통계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단 한 번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용 연구에 의해 통계의 목표와 대상이 달라지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 연구가 달라지면서 다시 새로운 통계의 목표와 대상이 설정되는 순환이 이상적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협업이다.⁴⁶

위의 인용은 문자 텍스트, 특히 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근대시란 일반적으로 일상적 언어와도 다르게, 산문이나 소설과도 다르게 ‘특수하게 구조화된 언어의 양식’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수한 구조’이다. 시행의 배열이나 비문법적 문장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구조’는 단어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 구조는 단어보다 큰 문장의 차원에서도 단어보다 작은 형태소나 음운의 차원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시의 구조는 음운에서 단어, 문장에 이르는 언어의 모든 층위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텍스트를 개별적 단어로 분해할 때, 이 구조는 데이터의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확인되기 어렵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의 단어들은 시적 기호로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야콥슨은 시적 기호는 일상적 기호와 다르며, 여기에 시적 기호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즉 “기호와 대상의 동일시(A는 A1이다)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그 동일시가 부정확한 것(A는 A1이 아니다)임도 즉각 알아차림이 필요하기 때문”⁴⁷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호는 그것이 원래 가리키는 의미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일치와 불일치를 동시에 가리킬 수 있다. 시적 기호가 의미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는 시적 기호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6 이상숙(2023), pp. 44-45.

47 로만 야콥슨(1989),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p. 159.

그러나 시의 언어를 데이터로 전환할 때, 시적 기호는 일종의 약호(code)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약호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지시하는 메타언어적 기능을 갖는다. 우리가 약호를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언어 집단에서 공유하는 맥락과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언어가 데이터로 추출될 때, 약호화된 이 언어는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맥락을 상실한다. 발화되는 상황 혹은 쓰이는 문맥이라는 소통적 구조까지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로서의 단어는 약호로서 다른 단어만을 지시한다. A는 B이다, B는 C이다, C는 A이다로 순환되는 말장난처럼 각각의 어휘는 다른 어휘를 지시한다. 예컨대 ‘가난’은 위 연구에서 빈도수 높은 어휘이자 백석 시의 주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추출된다. 그러나 ‘가난’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가난’이 지시하는 대상은 ‘가난’이다. 기표는 기표만을 지시한다. ‘가난’이라는 시적 기호가 지시하고자 하는 이면적 의미나 혹은 ‘가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시 텍스트 전체가 구성하는 의미는 재구성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가난’이라는 의미를 지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단어들, 예컨대 ‘낡은’ 혹은 ‘쓰러져가는’, ‘텅 빈’ 등의 기표들 역시 데이터로 추출될 때 ‘가난’을 지시하지 않는다.

시적 기호를 데이터로 전환할 때 직면하는 구조적이고도 의미적인 문제를 논자는 인지하고 있다. ‘가난’이 추출되지 않더라도 가난을 의미할 수 있고, ‘이야기’라는 데이터가 ‘이야기’를 가리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은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기어는 ‘같이 나오는 어휘’일 뿐이므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게 된다. ‘공기어 네트워크’는 저자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시어를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망에 놓음으로써 시어를 어휘의 배열과 연결의 한 지점으로 간주한다. 공기어가 가리키는 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단어’이지, 단어 너머의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시어 너머의 ‘무엇’ 아니

라, 시어의 패턴 즉 데이터의 패턴이며 시 텍스트란 이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일 뿐이다. 이를 통해 한 편의 시, 한 권의 시집이 가지고 있었던 텍스트의 완결성, 즉 시작과 끝이 있었던 텍스트는 시작도 끝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된다. 이는 근대문학 텍스트가 지닌 ‘책’이라는 물질성, 혹은 인쇄된 문자의 배열이라는 물질성을 약화시켜, 데이터의 집합으로 추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어가 지시하는 이면적 의미는 어떻게 탐구되며, 의미의 총합으로서의 주제는 데이터의 총합을 통해 탐구될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전성규는 문학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데이터화할 것을 제안한다.⁴⁸

소설 텍스트의 경우 서사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의미 단위의 축적이 무엇보다 분석에 있어 중요시되며 이러한 의미의 관계성을 서술부에서 만들어진다. 「은세계」에서 옥남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문물을 ‘보고’ 한껏 설레는 마음이 들지만, 그의 누이인 옥순은 미국에 ‘가서도’ 신문물을 ‘보아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떨어진다.’ 소설 텍스트 분석에서는 미국, 유학, 신문물의 대상보다는 ‘가서 보고 설렌다’ ‘가서 보지만 슬프다’ 등의 의미의 연쇄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미의 차이가 보다 중요하다.(8-9)

전성규는 이인직의 신소설 네 작품의 단어 빈도수 기반 추출을 바탕으로 명사보다는 동사나 형용사, 즉 서술어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각각의 단어들의 빈도수 자체보다는 각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적 연관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소설의 의미는 이 연관관계를 담당하

48 전성규(2022), 「소설의 언어를 데이터로 읽는다는 것: ‘한국현대문학데이터분석연구’강의 사례」, 『인문과학』 8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 5.

는 ‘서술부’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작품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어휘가 ‘가다’와 ‘보다’인데, 이 단어 자체보다는 ‘가서 보고’+‘설렌다’와 ‘가서 보지만’+‘슬프다’의 결합이 의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따라서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소설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으려면 서사성을 반영한 분석 모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미는 이렇게 문장의 여러 단위가 결합될 때 나타난다. 단어 자체로서는 다만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가리킬 뿐이며, 따라서 단어와 같은 형태적 단위, 혹은 문법적 단위로 분절해서는 텍스트의 의미론적 차원을 데이터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의미 차원은 정보의 빈도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다. 단순히 어휘나 단어, 형태소, 문장 등의 단위가 출현하는 ‘빈도수’만 가지고서는 의미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언어가 다른 기호체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 기호이기 때문, 즉 벤베니스트가 이중적 의미작용이라고 부른 기호이기 때문이다.⁴⁹ 언어는 다른 기호처럼 지시대상의 대체물이며, 그것을 표상하거나 대체한다. 이를 기호론적 의미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가 지시대상을 가지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시관계의 문제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언어의 전언, 즉 메시지의 차원은 언어의 의미론적 의미작용에서 실현되는데, 이는 담화의 세계와 동일하다. 말하자면 전언은 분리시켜 식별해야 할 단위들의 연속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전언은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사된 의미(즉 의도)이며, 이 의미는 개별적인 기호들 즉 단어들로 나누어져 실현된다는 것이다.⁵⁰ 논자가 소설을 데이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아니라 의미단위를 데이터화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가 가진 이러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9 벤베니스트(1992), 황경자 역,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2』, 민음사, p. 75.

50 벤베니스트(1992), p. 76.

그렇다면 의미론적 의미작용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를 실현하는 개별적 단어들을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즉 각각의 단어를 ‘의미 단위’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어떨까.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론적 구조를 데이터화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논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층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즉 “데이터 세트”로서, 단어-데이터의 층위와 의미단위-데이터의 층위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한 문장이나 혹은 문장과 문단 사이의 분량으로 텍스트를 분절하여 그것을 의미단위로 삼고, 이 의미 단위를 다시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로 분절하는 방식인 셈이다. 그는 이 하위 단위에는 감정의 주체, 감정을 촉발시킨 대상, 화제, 공간, 감정 양태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¹ 그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소설 텍스트의 의미적 연쇄, 즉 서사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이 하위 단위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 서사를 찾아낼 수 있다.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소리-음이 만들어내는 서사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문자 텍스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하위 단위를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독해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의미 단위와 그 하위 단위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의미 단위를 ‘판단’하는 독해자의 강한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텍스트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적 데이터의 중심’을 독해자가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문학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기호들의 조합이든 의미 단위들의 조합이든 이 통합 관계를 연구자의 직관에 의거하여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백석 시의 코퍼스 구축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한 부분과 상통한다.

이상숙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은 연구자 자신이 “‘무엇’과 ‘어떻게’를 조정하고 그에 맞는 통계를 추가하

51 전성규(2022), p. 13.

는 지점을 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반복해야”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구자의 주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여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어떻게 이를 바탕으로 해석적 의미를 끌어낼지 역시 연구자의 주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해석을 위해 ‘의미’와 ‘방법’을 변증법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문자텍스트가 변환됨으로써 기존의 문자텍스트가 더는 문자텍스트일 수 없는 것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문제이다.

문자텍스트의 언어는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산출하며, 이때의 언어들은 선행하는 언어와 후행하는 언어가 결합된 문장 혹은 문단으로써 결합한 통합체이다. 여기서 의미들은 통합체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언어를 넘어서 산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 통합체의 구조는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계열체만이 전면화되는 구조로 전환된다.⁵² 앞서 저자의 데이터화에서 보였듯, 통상적인 문자 텍스트에서라면 선택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던 의미적 단위들이 모두 데이터로서, 의미 관계의 한 연결망으로서 표면화되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들을 다시 통합하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문자 텍스트가 지니고 있었던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는 확신하기 어렵다.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 비어 있는 의미적 부분을 채울 데이터가 또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저자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데이터는 더 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는 더 확장된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는 루프가 아닐 수 없다. 컴퓨터가 여러 개의 루프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처럼,⁵³ 텍스트는 가난의 루프, 이야기의 루프, 감정의 루프, 소리-음의 루프 등 여러 개의 루프가 반복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변화되는 것이다.

52 마노비치는 서사와 데이터베이스의 대립은 통합체와 계열체의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레프 마노비치(2014), pp. 310-311].

53 레프 마노비치(2014), p. 431.

4. 디지털 시대의 문학 텍스트: 문학 연구 대상과 연구 주체의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이재연은 문학과 디지털 인문학이 만나는 문제적 지점은 “문학이 제도화된 학문 사이의 경계에서 개별학문이 설정한 전제와 목적에 불화하는 지점”⁵⁴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점을 한국 문학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학문적 제도로써 확립된 근대문학 개념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여기서 텍스트학-해석학, 매체학-서사학, 주체론-포스트휴먼이라는 세 가지 문학 내적 영역을 제시하면서⁵⁵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문학 창작이라는 전적인 인간의 영역을 기술/기계가 빠르게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 문학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인간 주체에게 어떠한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재연의 문제제기를 이 글의 입장에서 다시 쓰자면 그것은 디지털기술이 문학이라는 인간의 영역에 포함된 한계, 즉 한국 현대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이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디지털문학연구방법론의 등장은 사회의 관계망이 데이터중심주의로, 숫자와 이미지로 구축된 거대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구조 재편의 현상이자 ‘과정 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경향을 모레티의 용어를 따라 수량적 형식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는 언어 단위로 쪼개지고, 작가 역시 네트워크 망의 한 지점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문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해체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미 연구 대상으로서의 ‘문자 텍스트’

54 이재연(2024), 「한국문학에서 바라본 디지털인문학의 전망」,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7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p. 116.

55 텍스트학에는 하이퍼텍스트나 인공지능산출작품 등 어디까지를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가를 문제삼는다. 즉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문제삼는다. 매체학에서는 인간과 컴퓨터의 협업으로 산출되는 서사가 전통적인 서사와 같은 창작적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지, 주체론-포스트휴먼 영역에서는 컴퓨터의 행위능력, 즉 객체행위론의 관계에서 주체의 역할이나 위치를 문제삼는다.

는 더이상 ‘문자 텍스트’가 아니며, 작가는 더이상 근대적 작가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숫자와 데이터, 이미지로 변환된 ‘문학적 언어’들을 다시 문학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말이다. 이러한 환원은 이 연구들이 부정하고자 했던 문학사의 고정 관념들을 데이터로 재확인하는 것에 귀결될지도 모른다.

논자들이 보여주었던 데이터 가공 방식에 관한 진지한 고찰은 두 가지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 즉 적합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이 지니고 있는 의미적 연관관계의 차원은 통합체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계량화되기 어렵다. 데이터에서 빠져나가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를 보충하는 것은 연구자의 통찰이므로, 직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렇게 나온 데이터적 결과를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데이터를 데이터로, 객관화된 결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의미론적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연구자의 통찰과 직관에 포섭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둘을 종합해 본다면 수량적 연구는 완전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의미론적 해석을 위해서는 합의된 주관성, 즉 데이터의 생산과 결과 해석에 관한 주관성이 필요하다는 암시로 이어진다.

디지털시대 문학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자,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문학 생산과 수용의 관계에 의해 문학 텍스트 자체가 변했다는 것일 것이다. 구술 문학에서 문자 문학으로 이행하면서 문자에 기반한 변화가 생겨났듯, 문자에서 디지털정보로 변화하면서 문학은 또 다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하이퍼텍스트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매개-서사가 그 문제의 본질적인 차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디지털매체 시대의 ‘문자’가 전통적인 인쇄 문자가 아니라 전자 화면에 인쇄되는 모든 이미지(소리까지 포함하여)를 가리킨다면, 이 지점에서 ‘쓰기’와 ‘읽기’는 가장 혁신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학의 연구와 비평의 관점에서 다루는 대상들은 여전히 '문자 텍스트'이다. 문자 텍스트는 디지털기술 환경 속에 근본적으로 종속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자기를 분화시키는 과정, 즉 체계분화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근대문학이 그러했듯 말이다. 문학 연구에서 디지털연구방법론이 기여한 가장 중요한 혁신은 문자가 데이터로 변환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자 텍스트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게 한 것이다. 이는 또한 전통적인 문학 개념을 둘러싸고 있던 작가와 문자 텍스트라는 층위에 걸려 있던 담론을 해체하면서 발견해 낸 것이기도 하다. 한국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문학 텍스트'가 기술적 개입에 의해 '다른 양식의 텍스트'로 변화되었다면, 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기존의 문학제도가 요청하던 '연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재대상화된 문학 텍스트가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금-우리 연구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2001),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의 방향」, 『국어국문학』 129집, 국어국문학회.
- 권영준(2010),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3권 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김병선(2006), 「현대시인의 문체적 지문을 찾아서」, 『국어국문학』 143집, 국어국문학회.
- 김병선(2015), 『현대시와 문학통계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류인태(2020),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권 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문한별(2015), 「한국 현대소설의 기계적 문체 분석 가능성을 위한 계량적 방법론: 1930년대 작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0집, 국어국문학회.
- 문한별·김일환(2011), 「김남천 소설의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48집, 한국현대소설학회.
- 박경우(2022), 「인문학 연구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적용 방향: 디지털 인문학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집, 국어국문학회.
- 박슬기(2018), 「청춘의 문학, 근대문학의 전도된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66집, 한국문

학연구학회.

박슬기(2022), 『『대서문예신보』의 문학주의: 1910년대 말의 감정 구조와 문단의 형성, 『비평문학』 83집, 한국비평문학회.

박슬기(2024), 「근대 ‘문학’의 문자주의와 전통 ‘시가’의 가창성: 『소년』의 글-시가 배치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82집, 열상고전연구회.

안지영(2021), 「‘문학’ 혹은 ‘근대’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 〈포스트〉 진정성의 탈구축과 90년대 미적 근대성 비판」, 『상허학보』 63집, 상허학회.

이광석·윤자형(2019), 「국내 ‘디지털인문학’의 정착과 굴곡: 대학 교육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불안정한 접속」, 『한국언론정보학보』 95집,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상숙(2023), 「백석의 시어 ‘가난’의 공기어 분석: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2」, 『아시아문화연구』 62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이상숙(2023), 「백석의 시어 ‘이야기’의 공기어 분석: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3」, 『인문과학연구』 50집, 대구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상숙(2024),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4: 백석 시의 빈도수와 키워드 활용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64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이상숙·김일환(2022), 「백석시의 코퍼스 구축과 통계 분석 연구: 현대시 코퍼스 연구 방법론 1」, 『우리문학연구』 74집, 우리문학회.

이승은(2024), 「이야기는 어떻게 데이터가 되는가」, 『한문학보』 51집, 우리한문학회.

이재연(2014),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공간SAI』 30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이재연(2018),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한국문학에서 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역사학보』 240집, 역사학회.

이재연(2024), 「한국문학에서 바라본 디지털인문학의 전망」,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7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임운택(2022),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 『경제와사회』 133집, 비판사회학회.

장노원·임미진(2022), 「디지털인문학의 형성과 문학지식 플랫폼」, 『문화와 융합』 90집, 한국문화융합학회.

장문석·류인태(2021),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1): 작가 연구를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설계」, 『민족문학사연구』 75집,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장창영(2004), 「디지털 문학의 텍스트성과 입체화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전봉관(2000), 「디지털 시대의 문학과 그 정체성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8집, 한국현대문학회.

전성규(2022), 「소설의 언어를 데이터로 읽는다는 것: ‘한국현대문학데이터분석연구’강의 사례」, 『인문과학』 84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은진(2014), 「신동문 시의 어휘 사용 양상과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 『인문과학연구』 4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정의진(2024),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성 논의를 위하여: 문학의 역사성을 상기하며」, 『비평문학』 93호, 한국비평문학회.
- 조동원(2013), 「정보의 자본화 과정 비판: 정보의 추상화·사유화·상품화, 지적 재산권」, 『정보사회와 미디어』 26집, 한국정보사회학회.
- 진태원(2022), 「포스트휴머니즘 또는 디지털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한국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수용」, 『기억과 전망』 4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피종호(2005), 「디지털 문학의 유형」, 『뷔히너와 현대문학』 25집, 한국독일현대문학회.
- 황정아(2020), 「근대성의 판타지아: 1990년대 한국문학의 근대성 담론」, 『개념과 소통』 25집, 한림과학원.

- 가라타니 고진(2006),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 리오타르, 장 프랑수아(2018), 유정완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 리코르, 폴(2002), 박병수·남기영 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 마노비치, 레프(2014),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모레띠, 프랑크(2021),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세계문학과 수량적 형식주의』, 현암사.
- 바르트, 롤랑(2022),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 벤베니스트(1992), 황경자 역,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2』, 민음사.
- 셀러, 단(2001), 추광영 역, 『디지털 자본주의: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 전략』, 나무와숲.
- 시몽동, 질베르(2011), 김재희 역,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그린비.
- 야콥슨, 로만(1989),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 월러스틴, 이매뉴얼(1993), 나종일·백영경 역,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비.
- 월리엄스, 레이몬드(2007),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 제임슨, 프레드릭(2022), 황정아 역, 『단일한 근대성』, 창비.
- 헤일스, 캐서린(2013),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나』, 열린책들.
- Abrams, M.H.(1971),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Osborne, P.(1995), *The Politics of Time: Modernity and Avant-Garde*, London: Verso.

ABSTRACT

Literature After ‘Literature’

Park, Seulki*

Deconstructing the Modern Literary
Paradigm and Reconsidering
Methodology in the Digital Age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fundamental transformations in Korean society. This society may be understood as one shaped by digital capitalism, in which digital technology is not merely a tool but is deeply embedded in the structures of human percept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literary research methodology known as digital humanities, which first emerged in the early 2000s and became an area of active scholarly engagement during the 2010s. This methodology marks a shift from traditional qualitative approaches to quantitative methods, thereby reconfiguring the very concept of “literature” as the primary subject of academic investigation within literary studies.

In the discourse of modern literature, the author is recognized as the sovereign creator, and the literary work is regarded as a complete aesthetic structure grounded i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written language. However, in digital humanities—particularly in methodologies based on database construction—both the author and the literary text are transformed into data. The author becomes a fragmented cluster of inform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resistant to unified interpretation, while the literary text loses its traditional semiotic relationship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becoming instead an ever-expanding pattern of signifiers in pure presence. At this point, the conventional relationship between author and text is dismantled.

The datafication of the author and the literary text is not merely a technical shift in research methodology but a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privileged status of authorship and textual authority in modern literary discourse. In this regard, it may no longer be essential for literary research to achie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uthor or the work, as traditionally demanded by institutional norms. Rather, what becomes crucial is a reflection on how literature, re-objectified through these methods, can be newly understood in the digital age.

Keywords Digital Humanities, Korean Literature, Datafication, Authorship, Literary Methodology